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1월 발행 (제 45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세지 '악령의 교리' by 예레미야

◎간증 '남은 자' E3

◎알림 코너 '계시록 세미나'

<권두 메세지>

'악령의 교리' by 예레미야

오늘은 악령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합니다.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종말의 때에는 악령의 교리가 일어난다>

성경은 후 시대가 되면 교회에 악령의 가르침이라는 교리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악령의 가르침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리스도인과나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 문장에 "악령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라고 악령의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기독교

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경고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신경쓰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면, 종말의 날 에는 교회 에서 악령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꽤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가르치고 악령의 교리에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바른 경계심을 기르는 것을 위의 말씀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역시 속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는 다들 알고 있지만 역시 그래도 속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연간 몇 백억 엔에 이르는 피해가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령의 교리가 종말의 날에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위 말씀에서 전하고 있듯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은 말씀으로 듣고 배운 것 같지만, 역시 속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악령의 교리는 특별한 교리>

바울은 종말의 날에 관련하여 일부러 '악령의 교리'라는 특별한 교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후세대가 되면"라고 한 특정 시대, 즉 '종말'이라는 교회시대 중에서도 특별한 시대에 '악령의 교리'라는 특별한 교리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그런 것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귀찮게 말하지 마요"라고 과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반대로 "악령의 교리, 그런 특별한 교리가 일어나는 특별한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차근차근히 조심해야 한다"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있어야 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다.

종말이 아닌 시대, 지금까지의 교회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이단과 미혹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악령의 교리'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수준의 이상한 교리였으며, 인간의 상식과 관찰력으로 충분히 구분하고 간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준의 이단은, 예를 들어 위치타워와 통일원리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들은 자주 신문을 요란하게 하는 위치타워, 집단 결혼식의 통일원리로서 세상의 불신자에게 조차도, 이상한 이단이라고 불리는 수준입니다. 세상의 신문이나 주간지조차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이상한 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단 교리' 수준의 이단을 간파했다고 하여 '악령의 교리'와 성경에서 특필된 종말의 이단 교리를 간파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악령은 인간보다 머리가 좋다>

갑자기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과 악령, 어느 쪽이 더 머리가 좋을까요? 그 대답은 디모데전서에서 악령이

라고 쓰여져 있는 말의 그리스어인 다이모니온이라는 말로, 그 의미로는 사전적 의미로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보다 낮지만, 인간보다는 상위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으로는 악령은 인간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종말의 시대와는 특별한 시대이며, 그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수준을 넘은 악령적인 교리의 공격이 교회에 가해지기 때문에, 차근히 주의하라"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악령은 인간보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대단한 속임수도 아니잖아.", "나는 절대 속아넘어갈 리가 없어"라고 겁 없이 교만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초의 여성인 이브도 이 악마, 악령의 유혹에 간단히 걸려 생명의 나무에서 추방되어 버린 것을 기억 합시다.

<악령의 교리는 간파하기 어렵다>

악령의 교리는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상상하건데 그것은 이단 교리이면 간파하기 어렵고, 반대로 빨리 납득 당하기 쉽고, 시종일관 모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교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도 최근에는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변호사 등의 역할을 행하는 '배우'가 등장하여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것이지요.

<악령의 교리의 노림수>

악마라든지 악령은 그 종말의 날, 디모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악령의 교리를 교회에 장치하고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 목적은 분명하고, 노리는 곳은 기독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일 겁니다. 주님은 악마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악마, 악령들이 악령의 교리를 통해 노리는 것은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의 영생이며, 그것에 목표를 정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악령의 교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한가운데에 탑재된다>

그리고 악령의 가르침에 대해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악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교회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장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님의 첫 강림의 날을 생각해 봅시다.

그날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 의 백성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전문가이어야 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분을 깨닫지도 이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역시 그들이 이상한 교리, 명확하게 말하면, 악령의 교리의 포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악령의 교리에 현혹된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를 역으로 잡아 체포하고 재판하며 끝내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확실히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악령의 교리에 현혹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악령의 교리로부터 현혹되는 일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악령의 교리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미혹 하던 사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강림의 날에 일어난 것은 재림 의 날에 재현됩니다.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 교회를 장악하는 악령의 교리는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 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 부분을 침식하고 그 결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악령의 교리에 침식되고 있다>

지금의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 예를 들어, 천주교를 생각한다면 악령의 가르침에 그 중심 부분이 침식되어 그 결과 교회 전체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잃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진화론은 너무나 과학적이므로 부정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적혀있는 성경의 창세기는 단지 신화적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들은 천주교도들은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구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잃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은 지옥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 같은 가르침은 천주교도들을 방심 시켜 그 결과 그들을 멸망의 불에 넣고 악령의 지혜가 충만 가르침이며 확실하게 악령의 가르침이 천주교 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 악령의 교리에 침식되고 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저의 이해로는 개신교 또한 악령의 가르침으로 장악되어 있으며, 그 중심 교리가 이미 악령의 가르침, 교리에 침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는 기독교라고 이름이 붙으면 구원에서 새는 것 없고 멸망하는 것 또한 없다고 설득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나 만만세인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가르침은 황당무계하고 그분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악령의 교리이고 기독교인을 방심시켜 영생에서 멀게 하는 악령의 지혜가 충만한 가르침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같은 가르침의 모순을 생각해봅시다.

(좁은 문)

주님은 영생에 대해 그 길은 좁고 문도 좁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은 위와 같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도 좁고 그곳을 찾아내는 길조차 희소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명확한 여호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번 세례를 받았으니 일단 예수를 주로써 시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 영생을 확실하는 요즈음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르침은 완전히 악령적인 것이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안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며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을녀, 어리석은 을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부 후보의 딸들 사이에 선별과정이 있어 총명한 딸들은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딸, 바보

딸들은 맞이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날에 주님에게서 내팽겨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25: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25: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보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한 가지지만, 그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행보의 결과로, 사람들은 총명한 딸로서 그리스도를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불행히도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뭐든지 기독교인이라고 이름 붙으면, 싫어도 그 날에 그리스도는 신부로서 받아주시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 만연한 악령의 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리와 가라지)

기독교인은 또한 보리에 비유합니다. 보리빵에 통해, 즉 빵,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으로서 보리는 기독교인을 뜻하는 올바른다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 즉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보리와 가라지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라고 이름붙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13: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13: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숫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13: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13:39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숫군은 천사들이니

13: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13: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
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13: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
이 있으리라

여기에 명기되어 있듯이, 보리, 기독교도 좋은 보리와
가라지와 구분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
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올바른 교리에 머무는
사람은 좋은 보리로 창고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
니다만, 이상한 교리를 공부한 기독교인들은 가라지로
불에 타버리는 것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
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리라
면 전부, 창고인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
은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종말의 교리는 악령의 가르침에 침식되어 있다>

위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영생에 대한 교리도 이미 악
령의 교리에 석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
른 교리, 특히 종말의 교리는 악령의 교리에 석권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성경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며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건강한
교리에 근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말의 재앙과 환난은 모든 기독교인에 관계하
기 때문에

2 종말의 미혹은 많은 기독교인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3 종말의 날에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는 배교에 들

어가기 때문에

그에 반해 악령의 교리, 악령이 말하는 종말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종말의 재앙과 환난은 일부 사람들 (유대인)에 일
어나는 일이며, 기독교인은 무관하다며 많은 기독교인
들을 방심시킨다.

2. 그날 교회는 환난 전에 끔찍하다 하여 (그래서 환란
에 대비는 불필요) 근거 없는 안심을 그리스도인들에
게 주어 방심시킨다.

3. 성경에 명시된 교회의 배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악령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 재미있는 것, 편한 것을 이야기 하여 결과적
으로 미혹하여 멸망시키실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교
회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교리는 어느것도 이 특징을
충족하고 기독교인에게 근거없는 안심을 주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
들은 양의 털을 쓴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그리스도 교회를 석권하고 있는
헐 린지, 레프트 비하인드를 비롯한 종말의 교리는 상
기 조건을 충족하고 악령의 가르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
야기합니다.

- 이상 -

악령의 가르침

최근 예레미야의 홈페이지 메시지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어, 그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 레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본 교회 홈페이지 안내에서, 그곳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 . . 이번 No.244 '신부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요한 계시록3:1-6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데교회'는 '개신교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구원이 위험하다, 따라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 제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 목사도 뉴스에서 이미 메시지

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앞장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절의 말씀 중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 예레미야의 방 홈페이지의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의 방 홈페이지 메시지 No.244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남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 함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바빌론의 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이 소수의 '남은 자'조차 죽을 고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충으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날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궁과 도시의 재건에 종사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재건했는가? 라고 한다면, 교리와 영적인 구조의 조정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 교리도 영적인 것도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었으므로, 예루살렘의 재건 즉 지금 말하는 교회의 교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우 관련된 사항입니다.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만 . . . 덧붙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도 교리와 영적 회복에 종사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빌론 (우리는 바빌론은 미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 이상한 교리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의지로

바빌론 연고의 가르침을 말하는 교회에서 떨어져, 초막절 (지하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행해지는 것입니다만 . . . 그리고 지하 교회에서 그러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즉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그리스도 교회는 지하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광야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인가? 라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메시지 No.244에 있사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교회는 짐승 의 나라 미국이 대두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들을 석권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 교회라고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교회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초막절을 하는 것, 즉 지하 교회에서 교리와 영적 회복의 기능을 행하는 것을 재차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연한 교회에서 떨어져 지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만 . . . 그렇다고 하여 만사OK 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통파로 불리는 교회에서 나온 직후에, 그곳 교회 회원으로부터 " 왜 교회에 안 오게 됐나요?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충 둘러대며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안전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으니까요. 환란 전 휴거 설이라든지의 이상한 교리를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 있게 됐으니" 라고 이야기하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란 어디에도 없어요!" 라고 한마디 말하셨습니다. 그것을 빨리 납득할 수는 없지만, 기도속에서 "하나님, 지금은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잠시 후, "그래, 광야 교회에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단다. 너가

세상의 교회를 나온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의 행보를 교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요점은 그곳에서 제대로 행동하는가 여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방의 홈페이지 메시지를 읽고 "아, 그렇군요!" 하고 재차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를 집필하신 시기와 내가 나의 행보의 방향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타이밍은 제각각이지만, 역시 같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에 관하여 쓰여져 있어 . . . '음녀 바벨론'은 미국 유래의 이상한 교리와 영혼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여자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나가서 지하 교회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식의 말에 대해서도 이번 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지하 교회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행보하고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하 교회에 있다고 해더라도 "죽기 직전이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지면 하늘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

- 이상 -

남은 자

<알림 코너>

- ◆ 하나님에 의해 영속을 약속하고 만세일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한 다윗 왕조는, 400년의 역사 후 바벨론 포로를 계기로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 ◆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 "다윗은 이스라엘 집의 왕좌에 도달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약속 위반하고 만세일계는 과연 끊어져 버리는 것인가?
- ◆ 바벨론에 의해 다윗 왕조가 실종 된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정도 전의 일이다.
- ◆ 그 무렵, 동쪽의 섬나라에서 만세일계의 왕조가 탄생한다.
- ◆ 이 왕조, 황기 2600년을 자랑하는 만세일계의 천황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정당한 후계자 아닌가?
- ◆ 인종, 언어, 문화, 습관, 역사, 모든 면에서 천황과 다윗 왕조에는 유사성이 있다.

예레미야의 신간. "천황은 만세일계의 다윗 왕조의 후예이다!"

정가: 1500엔+소비세. 12월 1일 발매.

주문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경고의나팔 출판: fax : 020-4623-5255 메일: truth216@nifty.com